

2007. 3. 7

# OECD 세계포럼과 양성평등

## OECD 세계포럼 아시아 회의

문유경

본원 동향분석센터 소장  
mizmoon@kwdi.re.kr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지난 2월 8일과 9일 서울에서 OECD 세계포럼 아시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OECD 세계포럼에 앞서 열린 지역 회의의 하나이다. 아시아 회의의 주제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측정하고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로서, 세부 주제별로 사회발전의 의미와 측정사례, 인구 및 가족형태의 변화, 자유무역, 양성평등, 국가 간 불평등 등 총 9개의 부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양성평등 부문회의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 부문회의

이 부문회의의 기본취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는데 어떤 통계 정보가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의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어떤 통계정보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토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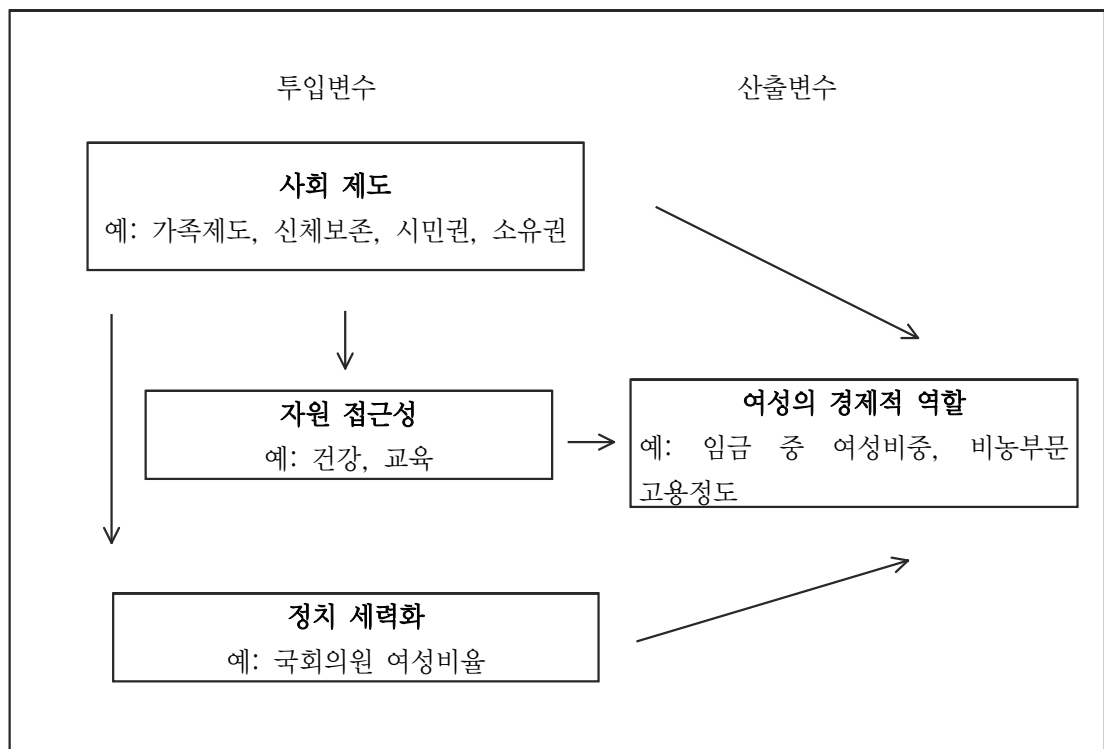
이 부문회의에서는 OECD Development Centre의 경제학자 데니스 드레슬러(Denis Drechsler)가 *성(불)평등의 측정: OECD의 젠더, 사회제도, 발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소개(Measuring Gender (In)Equality: Introducing the OECD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 Base)*를 발표하였다. GID로 불리는 동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센터에서 지난 해 발표한 것으로 이 회의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 첫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GID는 완성된 지표가 아니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변경이 예상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개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선진

국가의 경우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배경으로서는 기존의 여성의 지위상승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원인으로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이 주요 변수로서 거론되었으나, 이와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지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는 것이다. GID는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의 여성의 지위상승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를 지표에 포함하여 이 지표와 여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의 지위측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여성관련 사회지표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 GID 분석틀과 구성 지표

GID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위와 같이 GID 분석틀은 투입변수로 사회적 제도, 자원접근성, 정치적 세력화 정도를 선정하고 있다. 투입변수 중 사회적 제도는 가장 선행변수로, 다른 투입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출변수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선정하고 있다. 기존의 여성관련 사회지표인 GDI, GEM 등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정치, 경제, 교육 등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GID에서는 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ID변수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제도의 구체적인 지표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다.

i) **가족제도**: 결혼관습에 대한 정보(연령, 계승, 일부다처제 등), 가족 내 결정권(부모의

권위, 가족관계 절연 등)

ii) **여성의 신체보존 정도**: 성기절단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강간, 성희롱 등

iii) **여성의 시민권**: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과 같은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베일이나 남성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지 등

iv) **여성의 소유권**: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 은행 대출권 등

## GID의 문제점

GID는 여성의 지위측정보다는 지위가 낮은 원인을 찾는다는 점과, 그 원인으로 사회적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시도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여성의 낮은 지위의 원인이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GID에서는 그 원인을 4개의 변수로 통일된 분석틀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과연 가능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GID에서는 사회적 제도를 다른 투입변수보다 선행하는 변수로 상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호주제 철폐를 예로 들 수 있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적 세력화가 오히려 대표적으로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인 호주제를 철폐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틀과 다르게 나타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인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GID에서는 사회적 제도의 하나로 여성성기절단(FGM) 여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변수인 반면 동아시아 등 유교권에서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없었으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여성의 지위 중 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동 부문회의의 취지를 재고하건데,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내용은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한정했을 때 다른 부문에서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 내 권력, 정치부문의 지위, 폭력에의 노출정도 등이 GID 분석틀에서는 투입변수로 처리되어 있어,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석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결론

GID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사회적 제도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이의 측정을 위해 새로운 지표들을 수집했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더욱 많은 지표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지나치게 많은 지표들로 인해 지표들의 중요성이 퇴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